

밤·낮 즐기는 '화순 봄꽃 축제' 10일간의 여정

18~27일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서 유채꽃 즐기고 경관조명 감상 어린이 중심 체험 콘텐츠 집중 배치

'2025 화순 봄꽃 축제'가 오는 18~27일까지 10일간 화순읍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낮에 꽃강길에서 유채꽃을 즐기고 밤엔 남산공원에서 경관조명을 감상하는 이원화 된 공간 운영이 특징이다. 축제 주제는 '봄날의 꽃 봄밤의 빛'으로 정했다. 꽃강길은 2km에 걸쳐 펼쳐진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상상정원', '봄꽃 정원 게이트' 등 다양한 전시가 구성돼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또 다른 축제장인 남산공원은 어린이 중심의 체험 콘텐츠가 집중 배치된다. '핑크퐁 팝업 놀이터'는 6m 높이의 아기사어 조



화순 봄꽃 축제 꽃강길 축제장의 유채꽃 단지 전경. <화순군 제공>

형물, 에어바운스, 과자집 만들기, 키즈라라 체험 등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며, '핑크퐁 소원지 쓰기'와 '아기사어 복권 이벤트'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 축제 마지막 주말인 오는 26일에는 핑크퐁과 튠튠샘의 댄스파티가 두 차례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 화순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전국가요제가 축하공연으로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남산공원 주무대에서는 25일과 26일 로이킴, 정인·황가람 등이 출연하는 '봄밤 콘서트'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화순의 이야기를 담은 단품 메뉴 '화순 시그니처' (3항 1크림)도 새롭게 선보인다. 화순 관광에서 영감을 얻은 올블랙 아이스크림, 국화빵·복숭아빵·고인돌빵이 화순을 대표하는 상징과 맛을 온전히 담아낼 예정이다. 조형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에서 처음 선보이는 봄꽃 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첫 록 페스티벌 YB·카디 등 무대 올라 19일 군청 옆 특설무대

장성군이 오는 19일 오후 6시 장성군청 옆 특설무대에서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포스터>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은 장성군이 기획한 첫 정식 록 페스티벌로, 출연진 전원이 록 밴드로 구성됐다. 헤드라이너는 '오 필승 코리아'로 잘 알려진 밴드 YB다. 데뷔 30주년을 맞은 YB는 올해 해비메탈 장르를 시도한 신보 '오디세이'로 주목받고 있다. '슈퍼밴드' 3위 밴드인 '카디(KARDI)'도 무대에 선다. 한국적 색채와 록 사운드를 결합한 4인조 팀이다. 청소년 참여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 밴드 '이글이글'과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하랑'이 같은 무대에 오른다. 우천 시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소년들이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61억원 황금박쥐 제작 변견호 작가 함평 전시회 군립미술관서 5월25일까지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변견호 작가의 조형물과 회화를 선보이는 '생명과 예술' 전시회가 함평에서 열렸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 혼돈과 질서 등 근원적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변 작가의 작품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오는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변 작가는 194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군의 의뢰로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다. 함평군이 지난 2008년 28억원을 들여 순금 162kg로 만든 가로 1.5m·높이 2.1m 크기의 황금박쥐상의 가격은 18년이 지난 현재 261억원으로 치솟았다.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상시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변 작가의 조각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시도한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확장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변 작가는 조형물을 촬영한 후 아크릴과 색연필, 금박 등을 덧입히는 기법을 활용해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를 평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올오버 페인팅 기법과 다양한 재료 사용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환경교육·디지털 기술 융합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선정

나주시가 환경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민과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참여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지역 환경 전문가로 육성해 이들 주도하에 농촌 마을의 녹색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역 마을, 학교, 단체와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이 교육의 대

상이자 주체로 참여해 '교육-실천-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여성 인재를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 중심의 평생학습도시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만덕지구 93억원 투입 수질개선 추진

수질정화 식재·배수로 정비

강진군은 도암면 만덕·학장리 일원 만덕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만덕호는 총저수량 139만7000㎥ 규모의 담수호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질이 5등급(TOC 기준 6.6mg/L)으로 평가됐다. 유역면적이 작아 강우 때 외부 유입이 적고 사용된 물이 다시 만덕호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진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농업용수 수질기준(4등급) 충족을 목표로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 93억2500만원 규모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74억6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해 추진된다. 강진군은 국비 지원을 적극 유치한 결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인공습지 조성, 수질정화 인공 식

재림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한다. 인공습지는 양분장 폐수 처리를 위해 조성되며 수질정화 인공 식재림은 만덕호 유입수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간척지 중앙 수로와 동측 수로의 정비를 통해 수초 및 표토를 제거하고 응집·침전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만덕호의 수질이 현재 5등급에서 4등급(TOC 기준 4.5mg/L)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담양군, 18일까지 '평생학습동아리' 모집

팀별 100만원 내외 지원

담양군은 군민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을 통한 개인의 성장, 나눔문화 확산, 주도적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를 모집한

다고 8일 밝혔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자아발전 및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강사비·교재·재료비 등 팀별 100만원 내외이며, 담양군민으로 구성된 8명 이상의 성인, 가족 학습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오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누리집 평생학습정보방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양군 인문학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10년만의 일곱째아 출산 장흥군 총 9598만원 지원

장흥군의 한 가정에서 10년 만에 일곱째아가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에 거주하는 박모(45)·김모(40)씨 부부가 목포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지난 5일 일곱째 여아를 출산했다. 현재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태어난 일곱째아는 출산장려금 1200만원(3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탄생축하용품 구입비 10만원(1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비용 284만원(1회), 민간산후조리비 100만원(1회), 출생기본수당 4320만원(18세까지), 기저귀 구입비 216만원(2년), 부모급여 1800만원(2년), 아동수당 960만원(8세까지),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108만원(1년), 육아용품 구입비 10만원(1회), 병원비 250만원(6세까지) 등 12개 사업에 걸쳐 총 9598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흥군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임은 물론 올해 현재까지 태어난 33명의 신생아에게도 빠짐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